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학생소비의식 설문조사

정석근, 함준상, 인영민, 박해중, 김용곤

축산기술연구소 축산물이용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국내 우유소비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지역 초·중·고등학생 1,489명을 대상으로 우유소비실태 및 유제품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유소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 5회이상 우유를 마시는 비율은 평균 58.9%이며 초, 중, 고등학생별 비율은 각각 84.5, 45.4, 33.3%로써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에 비해 51.2%정도 감소해 학년이 올라 갈수록 우유의 소비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회 이상 우유를 마신 기간별 학생비율은 6개월 미만 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3년이상 음용한 학생은 26.5%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우유단 소비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유의 좋은점에 대한 의견은 건강에 좋다와 키가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비율이 각각 45.4, 4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우유 단체급식에 대한 찬성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은 89.1%, 중학생은 71.0%, 고등학생은 85.6%로 나타나 중, 고등학교까지 우유단체급식을 활성화할 경우 우유 소비량은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본 조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3) 선호하는 우유종류는 가공우유(딸기, 바나나, 초콜렛우유 등)가 54.5%, 백색시유가 26.4%, 강화우유(천분, DHA, 칼슘강화유 등)가 19.1%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양가 높은 백색시유소비확대를 위한 품질향상 및 다양한 제품개발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4) 선호하는 유제품별 순위는 아이스크림, 발효유, 시유, 치즈, 버터순이었으며, 제품별 선호비율은 각각 90.3, 84.7, 55.6, 44.6, 32.4%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 결과 국내 학생들은 우유의 영양학적 우수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우유소비가 되지 않고, 구입시는 백색시유보다는 가공유를 선호하며, 우유단체급식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이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우유의 품질을 향상이 중요하며 아울러 초,중,고학생에 대한 우유단체급식의 활성화가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